

5월의 기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시편 138장 3절~5절)



-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성회 안내 -

2013년 5월 9일, 10일에 호주 멜번에서

"River of Life(생명의 강)" 성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여의도순복음도봉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복, 김순이,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문경섭, 안희순, 이형준, 오주봉, 오현주, 이규현, 정경자, 정낙숙, 조중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최인철, 한성희, 함석숙, Esther Han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최성찬 씨는 23세의 나이로 미국 보스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정된 미국 외교관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그와 함께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대학교 2학년 때 미국 정부의 외교관 선발과정인 '특별 프로그램 펠로십' 장학금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대학생 800만 명 중에 32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인데 그 중에 한국인 최성찬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재학 중에 4학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5개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달러, 약 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공부 벌레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펜싱 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트럼펫과 기타도 연주하고, 노래와 댄스 실력도 프로급이고 고등학교 때에는 잡지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공부 비결을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나 나의 생명의 방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방향이 되고 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황경애 씨는 '엄마, 울지마'라는 책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는 말을 더 자주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성공 척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황경애 씨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조용기 목사 초청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성회

조용기 목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헌정, 미주복음방송, 우리방송 등 생방송 중계



미국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가 18일 저녁(현지시간) 한인 교민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화려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이날 축제에는 스페인계 이민자들과 현지인들이 함께해 한인들과 기쁨을 나눴다.

1903년 하와이 호놀룰루 사탕수수밭에서 대한민국 선조들이 신앙과 기도, 피와 땀, 눈물로 시작한 이민의 역사가 올해로 110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기총 세계총회가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영적대각성 일일부흥성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성회와 행사를 4일간 진행했다.

첫째 날 로스엔젤레스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감사 대축제는 1부 감사와 축하와 영광, 2부 영적 대각성, 감사와 영광의 밤 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십자가기와 태극기, 성조기, 캘리포니아기 기수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대회장 김사무엘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조용기 목사가 작사한 찬양 '갯세마네 동산에서'가 김승업 목사의 지휘로 주님의 영광교회에 가득 울려 퍼졌다.

이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이 조용기 목사에게 전달됐다. 표창헌정은 강석희 어바인 전 시장이 맡았다. 또 티나 레이더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장이 조용기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한인타운 치안에 힘써준데 감사하다며 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성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오늘 같은 느낌은 처음



이다. 보통 말씀을 전하고 신유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성령께서 병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셨다"며 바로 병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있다.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마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행복과 불행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현실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나는 교회를 세울 때 최대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며 꿈을 통해 이룩한 교회성장을 간증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신유와 관련해 "국민일보의 한 국장이 책장암에 걸려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중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낫기 위해 병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병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나왔다'고 기도했다. 그는 방문을 나설 때 교통이 사라졌다고 했고, 지

난주부터 출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4차원의 영성이 가져다 준 기적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됐다. 또 미주복음방송과 LA우리방송 등을 통해 생방송됐다. 남가주기독교협의회 회장 진유철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우리나라 전쟁 후부터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120여 바퀴 이상 돌며 성령운동과 복음을 전했다.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전세계 가는 곳마다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역사가 다시 이곳에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크리스토퍼 선 목사는 "모든 부흥이 로스엔젤레스에서 시작된다. 아주사의 부흥운동처럼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부흥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제가 진행된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1984년 LA 올림픽 복싱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대형 체육관을 매입한 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었던 이곳은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록키>를 촬영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금은 6,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인 최대 교회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4차원적 존재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보다 높는데 있는 것은 하늘이 태산보다 높는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곧 마음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1. 마음 하늘을 청소하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불을 개고 방 청소를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 하늘은 더러워지기 쉽기 때문에 청소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 또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물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물이 되어 우리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것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 하늘을 청소하는 것도 물로 씻어 죄와 허물을 깨끗이 회개해서 씻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

‘마음 하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13절〉

더러워진 것은 청소해도 과거에 잘못된 것은 들춰내면 안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서 나가면 그것은 악한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면 반드시 울무에 걸립니다. 죄의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므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면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2. 마음 하늘을 정리 정돈하라

이제 청소가 끝나고 나면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는 새사람이 되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의의 선물을 입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의로움을 얻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허물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살고 못사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마음 천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기록된

대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 천국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마음먹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나의 세계를 만들라

창세기에 살펴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새로운 세계가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행했다”는 것은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새가 날개를 펴서 넓게 덮어주는 것처럼 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고, “궁창이 생겨나라”하니 궁창이 생겨나고 창조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마음에 성령을 모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근원인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 혹은 사회나 국가가 파괴되어가고 있을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가슴속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요로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써 고백하고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하면 성령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성령도 계속해서 이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롭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 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하늘을 잘 지키고 정돈하여서 성령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장소가 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 제자(형제)교회 연합 축복성회에서 설교

“긍정적 믿음 가질 때 마음 다스릴 수 있다”



우리교회 지성전에서 독립된 조용기 목사의 제자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영산형제교회연합회(회장 전호운 목사) 주관 축복대성회가 지난 4월 4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회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참석한 성도들로 초만원이 이뤄 대성전은 물론 베데스다·할렐루야성전까지 개방돼 참석자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성회에 참석한 제자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4차원 영성’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를 당부했다. ‘네 마음을 점검하라’(수 1:1~9)는 주제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미움

과 분노를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꿈의 소유’를 당부한 조용기 목사는 “꿈을 이루는데 있어 고난이 무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고난이 클수록 축복 역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감사기도를 드릴 때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며 성도들을 위로했다. 이날 성회에서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조용기 목사 제자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스승인 조용기 목사의 목회사역과 가정을 위해 송병구 목사(큰사랑교회)와 김유민 목사(강동교회)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성회는 송영준 목사(성산교회)의 사회, 박의섭 목사(성동교회)의 기도, 김용준 목사(도봉교회)의 성경봉독, 전호운 목사(강북교회)의 환영사 및 강사소개, 김성혜 한세대 총장의 격려사, 김삼환 목사(김포교회)의 헌금기도, 김경문 목사(중동교회)의 축도 순으로 마무리됐다.

순복음강남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자!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담임 최명우 목사)는 지난 4월 12일 DCEM 헌신예배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시편 23편 1절~6절의 말씀을 근거로 순복음강남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었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는 ‘꿈’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져야한다.”고 전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요엘 2장 28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천막교회 시절 5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셨지만 빌리 그램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셨고, 그 결과로 현재 세계 곳곳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다”고 말하며, 본인 역시 30년전 초신자 시절 조용기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세계 선교를 나가겠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



도와 꿈이 이루어져 현재 조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금요철야예배로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 시

가끼 장로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이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인도하였고 조용기 총재목사님의 해외 사역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역삼동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문화 및 청소년 사역을 전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선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7월에 완공예정인 선교비전센터를 위해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